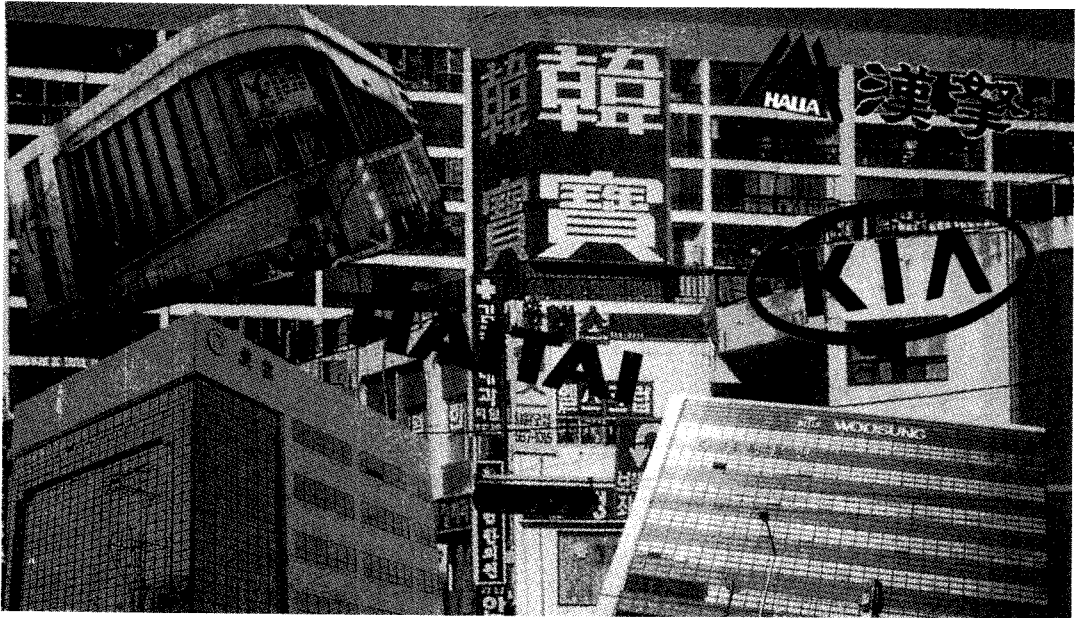


IMF구제금융이후



- ① IMF란
- ②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
- ③ 구제금융 파급효과
- ④ 해외사례 : 멕시코

■ 글/김 언 영 기자

1 IMF란

금융위기 국가들의 금융지원을 담당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1944년 7월 미국 뉴 햄프셔의 브레튼 우즈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기초한 브레튼 우즈협정에 29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1945년 12월 27일 발족하게 되었다. 설립초기 29개국에서 현재 182개 회원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8월 25일 가입하였다.

IMF는 40년대 전쟁과 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붕괴된 국제 경제 시스템을 재건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주요 설립목적은 ① 가맹국간 협의를 통한 국제통화협력 촉진 ② 국제 무역의 확대균형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가맹국의 고용 및 실질소득의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자원의 개발에 기여 ③ 가맹국간 질서있는 환협약을 유지하고 경쟁적인 환평가 절하를 방지함으로써 외국환의 안정도모 ④ 가맹국간 경상거래에 관한 다자간 결제제도의 확립과 세계무역 성장을 저해하는 외국환에 대한 각종 제한철폐 ⑤ 적절한 조건으로 가맹국이 기금의 일반재원을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그 목적이다.

IMF는 국제 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가입을 개방하고 있으며 협정문 제 4조에 근거하여 국제통화질서를 위해 각국의 환율제도 운영 및 환율정책을 감시하며 연 2회에 걸쳐 World Economic Outlook을 작성하여 세계 경제 전반, 선진국·개발도상국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세계교역을 균형있게 운영하기 위해 SDR(Special Dra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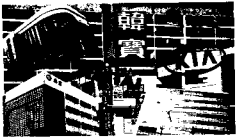
Rights: 특별인출권)을 창출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맹국에 대해 금융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정책을 권고하거나 자문을 수행하며 가맹국의 환율안정과 국제 수지안정을 위해 단기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IMF는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다시 회생하도록 구제요청을 담당하고 있는데 50년간 '긴축정책'이라는 일관된 처방전을 실시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위기상황이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 똑같은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MF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들을 지원조건으로 제시하여 초기 의도한 성과보다 지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야기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Martin Festein교수는 IMF가 최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지원한 경제 프로그램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아시아 각국의 위기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IMF는 똑같이 '긴축정책'을 요구하며 지원국들에게 무리한 조건들을 내세움으로써 세계 시장을 당혹케하거나 심지어는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지원국 국민들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IMF의 간섭으로 도덕적 상실감이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에 대해 IMF가 요구한 재벌개혁이나 비탄력적 노동법에 대한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지라도 현 상황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난의 목소리에도 일리가 있지만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 위기를 초래한 국가들에 있으며 책임 또한 그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IMF구제금융어우



1 IMF란
2 소액자 리미트스레일 전체
3 구제금융 제정목적
4 회의장 내 기구
5 IMF 로고

국내 금융위기의 원인 및 배경

국내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금융부문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로 효율적인 시장원칙의 결여와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생겨난 거액의 기업부채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금융기관의 시장적응능력이 결여 되어있어 금융위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으며 과도한 대출로 인해 위기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동시에 주가폭락으로 인해 은행보유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해외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당시 해외자금조달상황은 홍콩 증시 폭락과 함께 스탠더드 푸어스社가 국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10월 23일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신규 자금조달은 거의 중단되었고,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에도 어려움을 겪게된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는 11월 30일까지 20%정도 평가절하하기에 이르고 주가는 30%대로 하락하게 되어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정부 외환보유고는 시중은행의 해외지점에 대한 지원으로 고갈상태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90년대 초반이후 계속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었고, 특히 외채가 단기외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외국투자자들의 자금회수에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경제위기의 원인은 실물부문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한보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연쇄부도에 대응하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외국투자자들의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외환 유출을 가속화시켜 외환위기가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IMF와의 주요 협의 내용

올해 주요 거시경제 지표로 작년말 IMF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성장을 목표치를 1%대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도 8%대로 높여 초긴축정책을 실시하는데 합의하였다.

IMF는 우리나라에 금융지원을 위해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같은 조건들을 내세웠으며 국가 경제의 긴축정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MF와 우리나라가 협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원화절하압력을 줄이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시장안정을 위해 상승하도록 허용한다.
- ii) 재정지출축소와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고 기업의 법인세, 내국세,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도록 한다.
- iii) 비효율적인 금융기관의 개혁을 위해 부실화된 기관에 대한 타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과의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쇄하도록 하며,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관을 설립토록 한다.
- iv)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던 대기업들의 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이를 통해 재벌의 통합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한다.
- v)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한다.
- vi) 무역자유화를 위해 무역관련 보조금 지급, 수입다변화제도를 폐지토록하며 수입허가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개방화에 힘쓴다.
- vii)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한도를 대폭확대하며 외국의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참여확대와 적대적 M&A 등을 추진토록 한다.

줄이고 또 줄이는 소비지출

IMF 이후 구매패턴 변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직과 실질 가계소득의 감소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절약', '국산품애용' 바람이 일고 있다. 되도록이면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물품만 구입토록하는 최저소비만 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제품은 다시 고쳐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이런 변화된 구매패턴의 원인은 장기 국내 경기의 불황과 더불어 IMF의 기업구조조정영파에 따라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욕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전국 성인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IMF 체제 전후 소비자의식 및 행태 비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식 회수의 경우 IMF이전은 월평균 4.7회에서 IMF이후 1.2회로 약 74.5% 크게 줄어들었다. 축의금의 경우는 3만8천4백원에서 2만9천7백원으로 22.7%가 감소하였고 조의금의 경우는 3만9천4백원에서 3만7백원으로 22.1%로 줄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위 경조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개인적인 소비라 볼 수 있는 외식은 급격히 줄어들어 개인적인 소비욕구를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형 TV나 냉장고를 사는 것이 좋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1%나 되어 IMF이전의 18.5%에 비해 대형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

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이런 소비의식 변화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연계되어 국내 대형백화점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 2월 19~22일 신세계 백화점에서 E 마트 이용고객 1천 2백 82명을 대상으로 행해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IMF이전 평균 쇼핑회수는 주 1~2회에서 2주 1회로, 1회평균 쇼핑액은 3만8천6백80원에서 3만4천6백80원으로, 1회평균 쇼핑시간은 67분에서 54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국산품뿐만 아니라 몇개월 전만해도 판매가 성황을 이루었던 고가 외산품도 한파를 맞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소비재 수입은 6억9천8백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억 5천만 달러보다 무려 48.3%나 감소하였다.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져 볼 때 지난해 11%에서 9%로 한자리 수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고가 수입품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였고 IMF구제금융체제이후 과소비 추방운동과 국산품 애용심리가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산품에 용심리가 발생하여 국산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신한리뷰에 따르면 이스트팩, 잔스포츠와 같은 수입가방의 판매고는 9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97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시장 점유율 35%나 차지하였으나 IMF구제금융이후 주요 백화점에서 최고 40%씩 매출이 감소하였다. 반면 프로스펙스

IMF구제금융이후



IMF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
구제금융 체제이후
물품구매, 행위
*자료 출처



▲ IMF체제이후 소비자들은 보다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찾기에 할인점으로 몰리고 있지만 그들의 장바구니는 기법 기만 하다.

등 국산브랜드의 선호도가 증가하여 판매의 호기를 맞고 있다.

국내 소비경향은 장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무조건 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신한연구소의 윤지현 씨는 IMF시대의 생활경제를 축소균형모색으로 설명한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꺾였고 설사 실업상태가 아니더라도 미래 언제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처럼 '계속 증가할 것으로 믿었던 장래소득'에 맞춰 소비수준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졌다고 한다.

80년대 중반이후 높은 임금상승이 지속되다 IMF한파와 더불어 임금하락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임금 하락분은 더욱 크며 그 결과 소비위축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연말의 급속한 원화절하로 원자재 수입가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 물

가를 자극하여 물가가 상승하여 그 결과 실질 구매력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경기침체로 법인세 등이 감소하자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매우기 위해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인상하여 가계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임금 하락,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세금의 인상으로 소비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결과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크게 떨어지게 된 것이다.

오늘의 위기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싼 곳으로, 가격차이가 생기면 필요없는 기능은 없애고 가격은 낮은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과거 사회의 눈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행태'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저하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내수판매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처럼 과소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적당한 소비마저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산업기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내수불황이

모든 내수산업 크게 위축

건설업에서 시작된 부도가 전업종으로 퍼져 나감에 따라 신규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올해 내수는 IMF한파에 따라 작년 동기기간보다 20~3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생산도 10~15%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심각한 내수결핍이 예상된다.

지난 4월 30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작년 11월 이후 5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다. 가전업계의 경우 TV,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제품의 판매량이 지난해 보다 약 35~40%씩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내수용 생산라인 가동률이 지난해의 88%에서 올해 64%로 크게 떨어졌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몇년동안 금성장을 계속해 오던 에어컨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인상과 내수 침체로 인해 지난해의 1백 25만대보다 약 25%정도 감소한 93만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외 가전제품인 TV, VCR, 냉장고, 세탁기 등도 지난해보다 3~5%가량 감량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 삼성, 대우 등 가전업체들은 사상 최대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은 반드시 갖추고 있으나, 편리하지만 없어도 무관한 기능을 과감히 없애 가격을 내린 '저가의 보급형' 가전제품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IMF구제 금융체제의 여파로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이른바 'IMF형 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통의 경우 1~2월 매출실적을 보면 전년

에 비해 도매의 경우 10%, 소매는 6%가량 감소하였다. 내수 불황과 소비자 물가의 상승에 따라 할인점으로 소비자들이 몰려들어 백화점, 재래시장 등이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져 들고 있다. 특히 올 봄 정기세일은 지난해보다 일주일이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에서는 오히려 작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판매부진을 보였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 지난해보다 10%가량 매출이 감소하였고 현대백화점도 비슷한 수준의 매출감소를 경험했으며 부도난 뉴코아, 미도파, 블루힐은 지난해에 비해 30~50%가량 매출이 감소하였고 그레이스, 경방필, 애경 등 중소 백화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40%가량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자동차산업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내수불황이 예상된다. 올 상반기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3사의 평균가동률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월이후 공장가동률은 이보다 더 낮은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내수판매는 작년(1백 51만대)보다 50%정도 감소한 90만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기업 부도의 시발점인 건설의 경우는 고금리와 내수불황으로 인하여 상업용 및 공업용 건설투자가 매우 위축된 상태이다. 올 3월까지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5%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산업의 가장 중요부분이 건설경기는 올해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IMF구제금융이후



IMF구제금융이후
① 소비자 재이투자율 변화
② 구제금융 자금효과
③ 해외시장·혁신
* 99년 12월 현재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성장률과 긴축재정정책을 요구함으로써 국내 설비투자위축 등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 확대로 투기성자금(hot money)의 유입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침투로 경영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철저히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외국주주에 의해 과거처럼 경영주 단독으로 전권을 휘두르던 시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량 실업사태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내수 소비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아 국내내수 산업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원활하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요가 따라야지만이 신규투자, 혹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초긴축소비라는 최악의 사태로 말미암아 건설한 기업마저 도산할 우려를 낳아 IMF 구조조정이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기업들마저 숨통을 조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화긴축과 경제구조조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내경제성장이 주춤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의 개혁 및 경상수지 개선을 통해 국내경제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시행을 미뤘던 사항들이 IMF의 요구로 국내 경제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품 단가하락의 요

인으로 작용하여 수출 경쟁력이 되살아나 수출의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하락으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단순한 호재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들도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급의 고가수출품보다는 중저가의 제품이 많아 동남아국가들과 수출경쟁국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수출 호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게다가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기회로 인해 소나기식의 수출물량이 급증하자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세소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함께 최근 국가경제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각종 시민단체들의 소비절약운동과 수입품배격운동으로 EU,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불공정소비운동으로 통상문제화할 우려마저 낳고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고속성장을 해왔던 우리나라가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IMF 구제금융체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세계는 개방화, 세계화로 인해 각국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기술개발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가격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갖지 못한 기술이나 노하우, 보다 좋은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으로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기업이나 경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④ 해외사례 : 멕시코

멕시코의 외환위기 사례

페소화 폭락시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환위기와 많은 유사점을 갖고 IMF체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멕시코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멕시코 정부의 자국 통화, 페소화에 대한 고평가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1989년부터 계속 되었던 페소화 고평가정책은 매년 확대되어 그후 93년 달러화에 대한 페소화는 30% 가량 과대평가 되기에 이른다.

그후 94년 4월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OECD가입에 따른 선진국들의 환율자유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페소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에 이른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4년 12월 20일 달러당 3.46페소화였지만 일주일 뒤인 27일에는 5.60페소로 약 2배 가량 가치하락하였고 그후 95년에는 6페소가 넘어 페소화의 미달러당 가치가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

두번째는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외채를 끌어들이는 결과로 인해 외화 부족현상을 낳아 금융위기에 일조하였다. 멕시코는 1990년 경상수지적자가 75억 달러 정도에서 94년 294억 달러 적자로 크게 급등하였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페소화 고평가정책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데다 수입자 유희정책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거기다 국내 저축율은 13~14%에 그쳐

투자에 대한 기여를 하지 못하였고 그 부족분을 외채에 의존한 탓에 외채이자 상환부담이 가중 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해소를 외국자본유입으로 충당하려다 오히려 외환문제를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다.

세번째는 멕시코 자본시장이 해외 단기자본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다. 단기자본은 그 특성상 정치·경제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외환위기가 발발할 당시 멕시코 내부적으로 치아파스 반군의 반란, 정·경제인 피랍·납치 등의 사건으로 투자자들이 자본을 국외로 유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페소화 가치하락 압력과 그때마다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자금으로 달러를 매우면서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였다. 예로 94년 2월 경상수지는 적자였지만 단기 자본유입으로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연말에는 62억 달러, 95년 1월말에는 다시 35억 달러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마지막은 외환위기에 대한 살리나스 행정부의 조정능력이 미흡한 것을 들 수 있다. 국제 신용공여 과다, 환율-금리간 부조화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달러 표시 단기채권의 성급한 발행 등 금융과 재정정책의 부조화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

94년 페소화의 급락으로 시작된 외환위기는 95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6.9%로 줄어들었고, 물가, 금리, 투자 등은 급격히 악화되

IMF구제금융이후



③ IMF판
경상수지 적자해소
금리인상
외화유입
외환보유고
증가

었다.

멕시코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긴축정책의 실시로 인해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어 96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산업생산의 경우는 95년 마이너스 8%로 떨어졌고 물가는 96년 4월까지 월간 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로 인해 95년 멕시코 물가 상승률은 52%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금리는 대폭 상승하였고 은행간 금리는 폭등하지만 외국인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 후퇴, 실업증증,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등이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혼란을 겪게 되었다.

일관된 정부의 개혁의지로 위기극복

멕시코가 94년 폐소화 폭락으로 시작된 외환위기를 2년만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살리나스 행정부의 뒤를 이은 세디요 행정부가 강도높은 IMF의 초긴축정책을 성실히 그리고 일관되게 노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세디요 행정부는 과거정부와 달리 정부개입을 최소화시켜 멕시코 시장을 개방화시켜 기업의 경쟁력 도모에 힘쓴다.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은행이나 정부가 파산을 막기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폐쇄토록 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M&A를 적극 권장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IMF의 개방화요구와 세계화에 대한 논리로 자국에 존재하던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외국투자자들 유치에 적극 나섰다.

두번째는 은행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한 것

이다. 폐소화가치 급락사태로 기업도산이 줄을 잇자 부실채권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정부는 먼저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부실은행에 대한 국내외 은행과의 M&A를 추진하였다. 은행간의 M&A를 통해 부실채권의 많은 부분이 충당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부실은행은 정리되어 은행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마지막은 정부가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이 부분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다. 정부는 관광업, 광업, 농업, 제조업 등 4개 사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경쟁력 회복에 힘썼다.

IMF의 초긴축정책이라는 힘든 조건하에서 멕시코정부는 IMF의 요구조건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구제금융후 2년만에 경제를 회복하여 멕시코를 떠났던 투자자들은 다시 끌어들였고 경제는 다시 회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 남아있다. 기업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생겨난 대량실업문제와 산업생산성은 멕시코 경제회생 이후에도 여전히 속제로 남아있다.

멕시코의 경제회생과정은 과거 멕시코와 유사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IMF의 요구로 인해 발생한 모든 고통들을 참으며 노력한 결과 2년만에 IMF를 벗어날 수 있게 된 멕시코의 위기극복 과정을 보면 기업, 국민들이 모두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힘써 이룩한 결과로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참고자료

- <http://www.imf.org>
- 삼성경제 1998년 1,2월호
- 신한리뷰 1998년 봄호
- 계간 하나산업 1998년호
-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